

다산포럼



김정남 언론인

민주화 이후 한때 민주화 투쟁을 해 온 한쪽을 도덕주의 세력으로, 산업화를 주도해 왔던 다른 한쪽을 실용주의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이 두 세력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가자는 주장이 대두되기도 했었다. 나 역시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역사는 우여와 곡절을 겪으면서, 다른 길을 걸어 왔다. 민주화 운동 세력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도덕적 열등감이 그들로 하여금 이념 논쟁과 색깔 공세를 불러일으키게 했고, 그것이 오늘의 좌우나 진보·보수 논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이른바 산업화 세력의 실용능력이라는 것도 보잘것없는 것이 되었고, 민주화 운동 세력의 도덕성이라는 것도 더 이상 땃땃하게 내세울 수 없는 곳이 됐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나 자신이 겪어 왔고 또 알고 있는 민주화 세력이라는 이 나라의 정치적 민주화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던졌고, 그러기에 살아오는 동안 쫓기는 거리의 뒷골목이나 감옥에서 내 조국의 현실을 끌어안고 적어도 한 번쯤은 울어 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 민주화 운동 세력은 오직 30여 년에

돌아가면 안 되나

결친 군사 독재의 청산과 조국의 민주화만을 향해 시야를 가진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안보와 외교 통상, 먹고사는 문제 같은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는 미처 깊은 연구나 통찰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민생 문제에 대한 접근이 어딘지 미덥지 못하고, 특히 요즈음 갈팡질팡하고 있는 대입 제도와 관련한 교육 정책에 나타나고 있는 무능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발묘조장(拔苗助長)의 고사

최근 소득 주도 성장론에 기초한 최저임금제의 실시, 52시간 근로제와 탈원전 정책 등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어 시행하고 있는 일련의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의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정의감과 의욕만 앞서는 정책 운용의 미숙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발묘조장(拔苗助長)의 고사를 떠오르게 한다. 그 고사의 내용은 이렇다.

송(宋)나라 때 어느 농부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 눈에 심은 벼의 모가 빨리 자라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 매일 나가 모를 바라보았다. 매일 같이 나가서 지켜봐도 모가 자랄 기미가 보이지 않자 농부는 초조하게 는 주위를 왔다 갔다 하다가 모들이 자라는 것을 도와줄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억지로라도 모가 자랄 수 있도록 자기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고 논으로 달

러가 모를 하나하나 뽑아서 크기를 높게 하였다. 금세 모들이 커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아침부터 해가 서산에 떨어질 때까지 온 힘을 다하여 모를 뽑는 일을 계속 하였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온 집안 식구들을 모아 놓고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였다. 그 말은 들은 아들이 황급히 논으로 달려가 보니, 모가 모두 뽑혀서 말라 죽어 있었다.

경제 문제에 관한 한 문외한으로서 매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재정 지출로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도가 OECD 회원국가인데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이라고 하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득 자체를 올려 주기 위한 노력은 정의감에 입각한 선한 의지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최저 임금제도 역시 꼭 필요한 제도다.

그러나 그 최저 임금제로 인하여 살길이 막힌 600만 자영업자, 예컨대 편의점·치킨점·미용실 등 영세업자들은 “노동자만 국민이나, 우리도 국민이다”며 광화문 거리에서 절규하고 있다. 그동안 좀처럼 단체 행동에 나서지 않았던 사람들이 집 단행동으로 나선 것이다. 평화가 경제라고 하지만 그래서 더 불안하다. 거기다 늘린다는 일자리는 거꾸로 줄어들고, 줄어야 할 실업자는 늘어만 가고 있다. 그 방향과 목표는 만 번 읊지만 모를 빨리 키우자고 한 노릇이 모를 죽이는 일이 되어서 안 되지 않는가.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되 일본처럼 단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아베 총리

가 2015년에 1000엔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한 이후 일본은 3년 연속 3% 인פק씩 오르고 있다니, 2년 만에 29.1%나 인상되는 한국의 최저 임금제와는 크게 대비가 된다.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서도 일본은 노사 합의에 따른 유연성의 보장, 재량 근무 제도의 도입을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외신의 지적처럼 노동자의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저녁 식사를 걸러야 하는 삶’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 탈원전 정책에 있어서도 원칙은 지키되 유연성을 발휘할 수는 없는 것인가 묻고 싶다.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갈 수도

거기에도 안팎에서 들려오는 국민 경제의 경보음도 심상치 않아 보인다. IMF 전망치에 의하면 세계 경제는 작년 3.7%에서 올해도 같은 고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만 거꾸로 침체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경기도 심상치 않아 보인다.

모처럼 편 정책을 중간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줄 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도 당초에 자신이 반대하던 한미 FTA를 앞장서 체결했고,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후퇴할 수 있는 것도 지혜요 용기다. 막히면 돌아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일 수도 있다. 물이 흐르는 것이 그렇다. 급하면 돌아가려는 속담도 있지 아니한가.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갈 수도 있다.

청춘 특·특



김정은 순천대 문화애니메이션학과 4학년

‘워킹 홀리데이’(working holiday)는 한국과 교류를 맺은 약 20개 국에서 18~30세 청년들이 1년간 관광, 어학, 취업 등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이다. 대학에서 문화애니메이션을 전공하는 나는 ‘워홀 비자’로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일을 하게 됐고 약 6개월이 지났다. 같은 제도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면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일본이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통해 현지의 문화를 즐기고 체험하기에는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바이트(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줄여 부르는 말) 시급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도쿄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 돈으로 약 1만 원이다. 그리고 일본은 교통

또 다른 나와의 만남, 워킹 홀리데이

민영화 등으로 교통비가 비싼 까닭인지 대부분의 바이트에게 교통비까지 지원해 준다. 심비 등도 업체에서 제공해 주는 곳이 많다. 특히 가장 매력적인 건 ‘시프트’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고용주가 정한 요일과 시간에 맞춰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바이트에서 시행하는 ‘시프트 제도’는 자신이 일하고 싶은 날, 쉬고 싶은 날 등을 직접 정해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그 일정에 맞춰 스케줄이 결정되고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일을 하면 된다. 개인 사정에 따라 일정 조율이 편하고 만약 재정적 인 문제가 생기면 고용주에게 자유롭게 요청을 해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 일을 하면 된다. 게다가 현재 일본의 많은 가게들은 바이트로 일하고 싶어 하는 현지의 청년들이 적은 편이라 일본어가 조금 서툰 편인 외국인 바이트 희망자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

필자는 한국 명동과 비교되는 일본의 변화가 신주쿠의 레스토랑에서 주 4~5일 근무하고 있다. 바이트 동료들 중에는 베

트남, 중국, 네덜 등 여러 나라에서 일본으로 온 친구들이 있다. 각 국의 바이트 친구들 덕분에 일본인뿐만 아니라 평소 잘 알지 못하고 조금 낯설었던 여러 나라의 사람과 교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바이트가 끝나고 쉬는 날에는 자유를 즐긴다.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 위해 여러 행사나 미술관을 찾는다. 일본은 한국보다 미술관이나 전시회 문화가 많이 발달했다.

지금은 일본에서 가장 비싼 땅 가운데 한 곳인 롯폰기의 국립미술관에서 루브르의 작품을 선보이는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얼마 전에는 고도구의 불꽃놀이 대회에 다녀왔다. 불꽃을 보기 위해 남녘노소 할 것 없이 일본의 여름 전통 복장인 유카타를 차려입고 모인 사람들과 아카와와강을 화려하게 수놓은 4000발이 넘는 불꽃놀이, 이런 행사에 빠질 수 없는 일본의 길거리 음식 등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등을 신나게 즐기고 왔다.

굳이 특별한 날이나 전시회가 아니라도 신주쿠, 긴자, 시부야 등 다양한 지

역에서 이색 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곳은 내가 일본에서 사는 집이 있는 나카노다. 레트로한 옛날 만화, 애니메이션부터 아이돌, 영화, 드라마, 완구 기타 등 하루 종일 있어도 질리지 않는 신기한 옛 물건들을 파는 거대한 중고상점 나카노 브로드웨이부터 마치 1900년대 중반 유럽에 살 곳 있는 듯한 느낌의 빈티지 구제 옷을 판매하는 상점들, 세련된 카페와 드라마 ‘심야 식당’을 찍을 수 있는 오래된 선술집 등이 유명한 코엔지역 상점가까지 매력적인 장소가 굉장히 많다.

외국에서 일도 하며 현지 생활을 가장 가깝게 느껴볼 수 있는 청년기에만 주어진 1년간의 특별한 기회 워킹 홀리데이. 오늘도 나는 워킹 홀리데이가 또 다른 인생 경험과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한시간 한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있다. 방학의 의미 없이 보내기 보다는 워킹 홀리데이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社說

광주·무안공항 통합 시도 상생 희망이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또한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군공항의 전남 이전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어제 전남도청에서 열린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특히 무안국제공항을 국토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 민간공항을 오는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고, 기반시설 확충 및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노선 조기 완공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공항으로 통합된다면, 광주 군공항도 전남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 공항이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이전 대상 지자체, 국방부, 시·도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전 지역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는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해 국책사업 등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전 공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오는

2022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광주시·전남도·한전이 참여하는 설립 추진 위원회 구성을 정부에 건의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정과제인 국립 신비현관질환 센터 유지를 위해서는 시·도 합동 유치 위원회를 오는 9월까지 구성해 유치 활동을 공동으로 펼친다. 이밖에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당시 시·도 합의를 한 광주·전남 공동 발전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날 이 시장은 “우리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사사건건 경쟁하고 각자도생하면 끝은 공멸”이라며 “광주에 전남을 더하고, 전남에 광주를 보태야 경쟁력이 높아지고 상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도 “광주·전남은 역사적·문화적으로 한 뿌리이고, 경제적으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경제공동체”라며 “새로운 정도 천년을 맞아 함께 비상할 수 있도록 적극 상생하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같은 시도지사의 주옥같은 말이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부디 이들의 다짐이 다짐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민선 7기에는 꼭 광주·전남 상생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여수국가산단 잇단 사고 안전 대책 강화해야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또다시 유독가스 유출과 폭발 등 안전사고가 이틀 새 세 차례나 발생했다.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화학공장이 밀집된 여수산단은 조성된 지 5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심한 상태인데 매년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엔 여천NCC 여수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이자 합성 고무의 원료인 부타디엔 가스가 누출돼 작업 중이던 김모(45) 씨 등 네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같은 날 오전 롯데케미칼 원료 공장에서도 재료가 불완전 연소하면서 10여 분간 검은 연기가 외부로 유출됐다. 이튿날 밤에는 금호석유화학 고무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뜨거운 고무

연료를 담은 ‘핫 박스’가 가열되면서 화재가 난 데 이어 폭발로 이어졌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가 잇따르자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철저한 안전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5월부터 8월까지 석 달 사이 유독 가스 누출과 화재·폭발 등 다섯 차례나 사고가 발생, 사실상 ‘화약고’나 다름없는 데도 대책은 땀 질 처방에 그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지난 1967년 조성되기 시작한 여수산단은 공장의 설비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지난해 안전 점검에서는 53개 석유화학업체 대부분에서 369건의 지적 사항이 발견되기도 했다. 따라서 근로자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후 설비 싹새 전수 조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b>無等鼓</b>	
<p>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18일 세상을 떠났다. 세계 각국에서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난은 유엔 직원 출신으로서 처음이자, 아프리카계 흑인 최초 유엔 사무총장으로 오른 인물이다.</p> <p>1938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가나에서 유력 부족장의 아들로 태어난 아난은 20대 초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다. 미국과 스위스에서 학위를 딴 아난은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의 행정예산담당관으로 유엔과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1997년, 35년 만에 제 7대 유엔 사무총장 자리에 올랐다.</p> <p>아난은 재임 기간 유엔 개혁과 분쟁 지역 적극 개입, 에이즈 확산 방지와 빈곤 퇴치 등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8년 나이저리아가 군사 정권을 끝내고 민간 정부로 이행되는 과정을 도왔다. 이듬해에는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2000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할 때도 외교적 역할을 했다. 2001년 아난은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유엔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다.</p> <p style="text-align: right;">/박지석 서울취재본부 부장 jkpark@</p>	
<b>코피 아난</b>	
<p>‘디 엘덴스’의 회장도 맡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바 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주인공이다. 하지만 반 전 총장은 아직 아닌처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는 듯한데 앞으로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세계 평화, 좁게는 남북 평화를 위해 역할을 하는 반 전 총장의 모습을 기대한다. 그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며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살려 줄 수 있기를.</p>	

기고



황옥주 수필가

‘우리 집 마귀할멈’ 일본의 수필가 나까무라 오가와(中村おかわ)의 어머니에 대한 글씨가 이렇다. 수필이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가슴의 글이라 하더라도 하고 많은 어휘들을 놔두고 하필이면 ‘마귀할멈’일까? 가히 충격적이다.

어머니를 주제로 한 수필들은 아주 많다. 체험적 소재가 많은 특성상 그럴 것이다. 수필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듯이 등단한 본의 작품 몇 편에는 반드시 모정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기성 작가들도 많이 쓴다. 허나, 가슴 울리는 수필은 그다지 많지 않다. 백 사람의 이야기가 거의 전면일률적이어서 그렇다.

만 학교 길에 새벽밥 지어주지 않은 어머니 없고, 다시 공부길 떠날 때 쌀차루, 반찬 단지 머리에 이고 고갯마루 넘지 않은 어머니는 없다. 떠나는 배, 열차는 꼬리를 감춰어도 눈물 손수건 흔들어주지 않은 어머니는 한 사람도 없다.

어렸을 때부터 위대한 어머니 상으로

우리 집 마귀할멈

한석봉의 어머니, 이이의 어머니, 중국의 맹자 어머니를 귀에 못이 박이게 들어 왔다. 위인전 중에서도 먼저 읽어와 할 필자였다. “착하고 멋진 어머니가 아니면 훌륭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는 ‘사기’의 기록(飛揚傳)에 남을 어머니들이다.

어머니들은 자식을 사랑한다.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피로도 기쁨이요 주림도 즐겁다. 하지만 다른 한석봉, 다른 이이, 다른 맹자도 태어난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모정도 색깔이 다름을 말한 것이지 보통 어머니들의 교육에 잘못이 있고 사랑의 깊이가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무조건보다는 맞춤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우리 집 마귀할멈’을 쓴 오가와는 장애아로 태어났다. 보통의 어머니였다면 그런 자식이 불쌍해서 연민의 정으로 가슴에 품고 감싸고 그러면서도 애달라 했을 것이다. 장애아인 딸을 장애아로 보지 않고 남들과 조금 색다르게 태어난 아이라고 생각하며 길렀다. 밖으로 따뜻한 정을 버리고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사랑의 잣대로 삼았다. 보이지 않은 피눈물이 장애아를 길러낸 맞춤 모정이다. 이를 알 턱이 없는 오가와는, 어머니가 내 어머니일 수가 없는 무서운 마귀로 보였을 것이다.

그녀는 다섯 살이 되어서야 겨우 걷게 되었다. 학령기가 되어 양호 시설에 넣자는 아버지를 질타하며 “내가 따라다닐 거요”를 선언하고 일반 학교에 넣었다. 보살 없는 마사지사로 딸의 팔다리를 주무르는 것을 희망으로 삼고 살았다.

어머니는 집안일은 모든 자식들에게 고르게 분담시켜 반드시 책임을 완수하게 했다. 큰딸인 오가와와 책임은 계단의 절레질 청소였다. 수도가 없던 시절이라 펌프로 물을 길되 펌프질 100번이 목표다. 한 겨울, 펌프로 뽑아 올린 물이 따뜻할 턱이 없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가족으로 대해주지 않을뿐더러 학교가 늦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시간에 맞추려면 더 일찍 일어나야 할 일, 늦은 잘못은 오가와 자신의 탓이라는 식이었다. 다리가 안 좋으니까 라든가 신체가 마비되어 있으니까는 인정해주지 않았다. “너는 서투르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남들로부터 낙오당한다”가 논리고 주장이었다.

목욕탕 장작불 지피는 것이 서툴다며 몇 번이고 다시 시키고, 걷는 법이 나쁘다고 가파른 언덕길을 매일 반복해서 같이 걸었다. 잠자는 자세가 보기 흉하다며 잠든 딸을 깨우기 일쑤였다. 오가와와 언젠가 마귀할멈을 혼내주겠다고 버리며, 밤마다 잠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내일,

어머니와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어머니가 크게 꾸중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결코 실수하지 않게 하소서”하고 오래 외래 기도했다. 한 번은 견디다 못한 오가와가 가슴을 결심하고 나가버렸다. 자식을 잃은 고통을 맞보려는 일종의 반항이었다. 데리러 온 아버지를 따라, 못이 건진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는 좀 상냥해졌는지?’ 미루어 속으로 단정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오히려 “나 눈물이 나서 흐른다. 내 딸이 가출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졌다고 생각하니... 좀 더 노력해서 가출해 주렴!” 하시는 게 아닌가.

“정말로 나가 버릴 테야”

“그래, 그래, 진짜 가출 말이다. 기다리겠다.”

마침내 오가와가 스스로 집을 나와 혼자 힘으로 생활하게 됐을 때는 서른 살이었다 한다. 맞춤 자식 사랑이 어떤 것인지의 깨닫게 하는 수필이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 밤중에 찾아온 아들이들 매를치며 쫓아 둘러보낸 한석봉의 어머니, 어린 맹자가 학업을 중단하고 집으로 들어섰을 때 짜던 베를 잘라버린 맹모단기(孟母斷機)를 떠올려 준다. 그분들은 친피 어머니들이어서 그랬을까? 어머니 새의 위대함을 알을 낳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부화시켜 제대로 기르는데 있다.